

보 도 자 료 2014. 9.25.(목)	행사문의	강은수 연 구 원 (02-3156-7218)
	언론담당	황 애 리 홍보담당 (02-3156-7296)
	보도일자	2014.9.25.(목)
	※ 총 9쪽 (붙임 포함) www.kwdi.re.kr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개최

- 최근 결혼 적령기 여성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일까? 워킹맘의 고용형태에 따른 일·가정양립 결정 요인과 그 해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기업의 역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 해답은 여성 가족패널조사에 있다.
- 여성·가족정책 전문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오는 9월 26일(금) 오전 9시 30분에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 센터에서 국내 여성·가족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1차~4차 여성가족패널 조사자료를 활용한 연구 결과물을 공유하고 다양한 정책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 되었으며, 크게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 제1세션에서는 여성경력단절결정요인에서 기업의 역할, 기혼여성의 가정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등의 주제발표가,

- 제2세션에서는 베이비부머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미혼 여성의 결혼결정요인 분석 등의 주제발표가 이루어진다.

※제2세션 주제발표에서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미혼 여성의 결혼을 위해 일자리 문제 등을 해소할 것을 제안한다.

- 제3세션에서는 중년여성의 돌봄 부담과 의료서비스 사용과의 관계 연구, 맞벌이 여성의 근로시간과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우울감의 구조적 연관성 연구 등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여성들의 삶에 대한 종단면 자료 구축을 위해 2006년부터 여성가족패널조사(KLoWF: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를 준비하고, 2007년 1차 조사를 시작으로 2014년 현재 5차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급격한 변화의 중심에 있는 여성과 가족, 그리고 관계와 가치관, 여성노동과 일상의 변화 등 여성의 삶 전반을 가시화 할 수 있는 일반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 9,329가구 내 여성 11,234명을 표본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방대한 패널자료이다.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명 :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 일시 : 2014년 9월 26일(금) 09:3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
- 공동주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SSK사업단 “하이컨셉, 문화기술, 정보통신 기술 및 창조계급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창출 모형 연계 팀” , 한국보건사회학회
- 후원 : 한국가족학회
- 프로그램(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초청장 참고)

구 분		세 부 내 용
09:30~10:00	등 록	
10:00~10:40 (목련관)	개회식	개회사 : 김태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리) 시상식 : 제4회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대학원 논문 경진 부문 시상 발 표 : 여성가족패널(KLOWF)의 개관 및 표본이탈 분석 주재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임연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
10:50~12:20	세션 1	제1주제 SSK사업단 “하이컨셉, 문화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창조계급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형 연계” 팀 특별섹션 (동백관)
		▷ 여성경력단절결정요인에서 기업의 역할 ▷ 근로유형별 여성의 근로이행률 차이와 근로안정성과의 관계분석 ▷ 워킹맘의 고용형태별 일·가정양립 결정요인과 해법
		제2주제 한국가족학회 특별섹션 (수련관)
		▷ 영유아를 둔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양육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 기혼여성의 가정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혼 직장여성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제3주제 여성과 일 (목련관)
		▷ 기혼 임금근로자 여성의 취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결혼과 출산을 전후한 경력단절 ▷ 청년층 여성의 직업이동 ▷ 기혼 취업여성의 고용형태 변화결정에 관한 연구: 정규직·비정규직을 중심으로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50	세션 2	제4주제 부부관계 및 기혼여성의 취업 (수련관) ▷ 베이비부머 여성의 부부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부부가 함께하는 활동의 변화와 변화 유형별 특성 비교 ▷ 기혼여성의 이직 및 노동시장 이탈에 관한 연구
		제5주제 결혼과 노후준비 (동백관) ▷ 미혼 여성의 결혼결정요인 분석 ▷ 여성 Sandwich Generation의 삶과 노후준비 ▷ 맞벌이 가정에서 직장 맘의 직장과의 가정의 긍정적 전이: 부양의무, 가사노동, 자녀와 남편
		제6주제 대학원생 논문 발표 1 (목련관) ▷ 비혼 여성의 가족관계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 제이차인구변동(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아래 한국의 초저출산율 그리고 출산시기-위험도 분석 모형을 통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분류 ▷ 여성의 가족 내 역할 인식과 일-가정 양립 인식 및 일 만족도간의 잠재성장모형 연구 :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사람의 유무에 따른 다집단 비교
14:50-15:00	휴식	
15:00-16:50	세션 3	제7주제 한국보건사회학회 특별섹션 (수련관) ▷ 중년여성의 돌봄 부담과 의료서비스 사용과의 관계 연구 ▷ 여성의 다중역할, 역할가치관과 우울증상과의 관련성 ▷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여성 특이적 건강상태와 보건형태와의 상관분석
		제8주제 여성의 가족관계와 건강 (동백관) ▷ 맞벌이 여성의 근로시간과 일가정 양립 갈등 및 우울감의 구조적 연관성 연구 ▷ 중고령 여성의 손자녀 돌봄과 우울: 손자녀 돌봄이 경제 활동참여 여성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제9주제 대학원생 논문 발표 2 (동백관) ▷ 직장-가정 자원이 일-가정 갈등에 미치는 영향: 여성노동자의 직업 지위 차이 중심으로 ▷ 기간 근로가 일가정 대립에 미치는 영향: 여성근로자의 비율에 따른 차이 ▷ 한국의 미혼성인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원에 관한 연구: 지원의 규정요인 분석

미혼 여성의 결혼 결정요인 분석

박수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최근 결혼 적령기 여성의 결혼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왜 결혼 적령기의 미혼여성들은 결혼은 하지 않거나 계속 미루는 것일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부분적인 답을 찾기 위해 본 연구는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령, 일자리유무, 교육년수, 본인건강 상태, 가족동거여부와 같은 개인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었으나, 주택 매매 가격이나 전세가격, 실업률과 같은 거시경제적 요인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낮아진다는 사실은 현재의 만혼 혹은 비혼화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결혼의향의 조건부 전이확률에서 보듯이 현재의 결혼의향이 다음기에도 유지될 확률이 높은 것을 볼 때, 현재의 만혼 혹은 비혼화 경향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을 극복하기 위해서 육아비 지원과 같은 이미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근본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미혼 여성의 결혼의향 자체를 높일 수 있는 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직장이 있는 미혼 여성일수록 결혼의향이 높다는 것은 현재의 청년실업문제가 나아질수록 미혼 여성 만혼화 혹은 비혼화 경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양육비 경감이나 보육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젊은 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 요구된다.

다만, 주택가격 혹은 전세가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미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택마련에 대한 부담이 많은 남성이 빠졌기 때문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볼 수 있다.

워킹맘의 고용형태별 일·가정양립 결정요인과 해법¹⁾

권태희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연구는 제4차 여성가족패널조사(2012)를 이용하여 기혼여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의 주요요인들을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고용형태별로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기초한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주의 승진·임금·배치에 대한 정규직 워킹맘에 대한 성차별수준이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수준은 감소하였다. 둘째, 워킹맘의 일 만족도와 결혼만족도가 각각 높을수록 일·가정양립수준도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동반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일 만족도가 일·가정양립수준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혼여성근로자들은 일 중심적인 가치관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성 평등한 가족가치관을 가질수록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일·가정양립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편의 가사참여정도는 예상 밖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일·가정양립정책에 대한 지원은 정책형평성을 고려한 획일적 지원이 아닌, 여성고용형태에 기반 한 집단별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유연하게 적용할 때 정책효과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 이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 2013년 SSK 사업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 장기 아젠다의 “하이컨셉, 문화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창조계급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형 연계-구축과 추진전략” 연구과제(2013S1A 3A 2042735)의 지원으로 작성한 것임.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및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호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황정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연구 중 피해자가 보이는 피해의 특성과 피해자화의 과정,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규명하는 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가부장적 시선, 가족은 친밀하고 사적인 영역이고 깨져서는 안된다고 보는 가족에 대한 규범과 관념 등과 같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들 연구가 갖는 큰 의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피해경험이 있는 여성, 예컨대 쉼터에 입소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연구결과로 제기되는 다양한 요인들간의 관련성을 유추하여 기술하고 함의를 도출하고 있어서 일반화하여 의미를 살펴보는 데는 제한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해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했던 선행연구들에서 제기되었던 이슈나 요인들을 분석변수로 구성하여 응답자의 개인특성, 가족 관련 인식, 양성평등의식 등과 가정폭력 피해경험과의 관련성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경력단절결정요인에서 기업의 역할²⁾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이 연구는 임금근로자 중 기혼자 취업여성의 경력단절에 있어서 기업의 근로제도가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1차와 4차 자료를 이용하여 개인의 특정 외에 기업의 각종 여성 우대 정책과 근로제도와 경제적 보상 등을 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시적인 경력단절이든 또는 장기적인 경력단절이든 기업의 역할과 함께 근무에 대한 만족 그리고 직장과 일가정 병립에 대한 문제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녀의 수와 성비는 여성의 노동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를 본 분석에서는 첫째 자녀가 아들인 경우 전제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2.3%이지만 첫째가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9.0%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까지 확대할 경우 두 자녀의 성비가 여자아이인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15.6%이지만 둘째 중 하나라도 아들이거나 둘 다 아들이 여성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은 20.8~21.7%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2) 이 연구는 한국 연구재단 2013년 SSK 사업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 분야 장기 아젠다의 “하이컨셉, 문화기술, 정보통신기술 및 창조계급을 통한 창조경제 성장 동력과 새로운일자리 창출 모형 연계-구축과 추진전략” 연구과제(2013S1A 3A 2042735)의 지원으로 작성된 것임.

근로유형별 여성의 근로이행률 차이와 근로안정성과의 관계분석*

강성호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김기홍 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높은 이혼율, 편부모 가정의 증가, 그리고 장수리스크는 고령화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위험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려는 여성의 선택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를 통한 여성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근로안정성 확보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의 근로형태가 생애기간동안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살펴보기 위해 여성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유형별 근로이행률을 분석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이다. 현재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여성정책 및 여성 능력 개발, 여성 연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복지 증진과 가족 그리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법령, 정부 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지원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983년 개원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 2007년 5월 한국여성개발원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으로 기관명을 바꾸고,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Think-Tank 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이며, 저자의 소속기관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